

문인 주당대회(酒黨大會)



신동한 문학평론가

술의 기원을 더듬어 보면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약 1만년 전인 신석기(新石器)시대에 생겼다는 향간(巷間)의 주고 받는 말들이 있다. 어쨌든 술은 인간의 문화 창조와 역사 발전에 커다란 기여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해독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술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독 보다는 기여한 쪽에 편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지당한 일이다. 술꾼에게 술이 없다면 세상은 암흑이요, 인생은 삭막하고 살벌한 지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술을 마시는 계층에도 많은 부류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글을 쓰는 문인 술꾼이, 아전인수는 아니지만, 가장 멋이 있고 풍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의 시문학을 빛낸 이태백(李太白)·백락천(白樂天)·도연명(陶淵明) 등이 모두 이름난 주객(酒客)이었고 우리나라 고전문학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는 정송강(鄭松江)도 「장진주사(將進酒辭)」 등의 술에 관한 시를 읊은 풍류의 술꾼들이었다.

지난 날은 그렇다 치고 현대에 와서, 근래까지도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의 「명정(酩酊) 40년」이나 무애(無涯) 양주동(梁柱東)의 「문주반세기(文酒半世紀)」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술을 즐기는 풍류 문객의 명저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어쨌든 10여년 전에 모 잡지에 「문단주유기(文壇酒遊記)」라는 제목아래 술에 관한 연재를 하여 그것을 책으로 묶어낸 일도 있지만 그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앞에 처든 문호나 문단 대가에 비길 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머릿말이 좀 길고, 수다스러워진 것 같은데 본 제목에 내세운 「문인주당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술을 즐기는 술꾼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빨리 마실 수 있는냐를 겨루는 모임을 보통 주당대회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임이 그동안에 어떤 주최회사나 큰 양조장에서 어쩌다가 선전, 광고행사로 열리기는 했지만 아주 이름을 내걸고 어떤 기관이 주당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했던 것은 아주 드문 일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상천외한 주당대회가 1966년께에 당시 엄청난 발행부수를 자랑하던 한국일보사 발행의 주간지인 「주간한국」에서 벌였던 것이다.

원로 문인 정비석(鄭飛石), 조병화(趙炳華)씨, 그리고 여류문인 김남조(金南祚), 구혜영(具曄瑛)씨 등을 비롯하여 문학평론가 윤병로(尹炳魯), 김우중(金宇鍾)씨 등, 이밖에도 많은 문학인에 화가, 건축가, 방송인 등 장안의 꼽히는 명사들이 다 모였었다.

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상천외한 주당대회가 1966년께에 당시 엄청난 발행부수를 자랑하던 한국일보사 발행의 주간지인 「주간한국」에서 벌였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주간지가 「주간한국」 하나밖에 안 나오던 시절이라 언제나 장안의 화제를 불러모았던 일만 골라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주간한국」에서 주당대회를 열었으니 더욱 시끄럽고 요란했던 것이 사실이다.

행사에 초청된 인사들은 문인을 주체로 해서 모두가 문학예술계에서 내노라 하는 명사들이었다. 원로 문인 정비석(鄭飛石), 조병화(趙炳華)씨, 그리고 여류문인 김남조(金南祚), 구혜영(具曄瑛)씨 등을 비롯하여 문학평론가 윤병로(尹炳魯), 김우중(金宇鍾)씨 등, 이밖에도 많은 문학인에 화가, 건축가, 방송인 등 장안의 꼽히는 명사들이 다 모였었다. 이 주당대회를 필자가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당시 「주간한국」에서 현역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를 진행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술이 필요했다. 지원을 받은 곳은 OB맥주와 크라운 맥주의 두 술 회사였다. 이 두 맥주회사에서 한 트럭씩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그리고는 남이섬의 풀밭에서 주당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경기종목은 빨리 마시기와 많이 마시기, 그리고 맥주상표의 식별 등의 세가지로 결정했다.

주종목인 많이 마시기에서는 모두가 더 많이 들이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역시 몸집이 말을 하는 모양이었다.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시합을 했는데 남자로는 체구가 당당한, 당시 명어나운서로 이름을 떨치던 임택근 씨가 무난히 1등을 하였다. 여자선수로는 모두가 그렇고 그런 주량들이라 별 차이가 없는듯 싶었는데 끈기와 오기로 김남조 시인이 1등을 하지 않았었나 기억된다.

빨리 마시기, 맥주 상표 알아 맞추기도 각각 특기를 보인 남녀 선수들이 모두 1·2·3등을 차지하여 상품으로 맥주 몇박스씩의 티켓을 나누어 받았다. 또 이날 주최측에서는 행사 진행중 혹시 사고가 날 것에

문인들에게는 술이 좋은 글을 쓰는 매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힘이 되어준다.
술을 제대로 알면서 지혜롭게 마시는 가운데에서 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지내야겠다.

대비하여 의사와 간호사까지 수행시켰었다. 그런데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작고한 건축가 김중업(金重業) 씨가 몸에 약간 이상을 일으켜 들것에 실려가 진료를 받기도 했다. 어쨌든 양조장이 아닌 주간지가 벌였던 문인주당대회는 이렇게 요란하게 진행되고 여러가지 오락행사까지 곁들여 저녁 무렵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행사의 후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는 아직 TV가 크게 보급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방송국에서 이 주당대회라는 이색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 녹화를 해서 다음 날 화면으로 내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때가 한창 무더운 여름철인데다가 호남지방에서는 가뭄이 계속되어 한발로 시끄러웠고 급수차가 동원되어 물기근을 겨우 달래던 무렵이었다. 이런 어려운 계절에 지각없이 남이섬의 풀밭에 맥주를 아낌없이 뿌려대며 술 마시기 자랑을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거기에다가 「주간한국」에서는 화제(話題)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간지 표지에다 주당대회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으니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 되고 만 것이었다.

이렇게 전대미문의 기상천외한 주당대회는 행사도 시끄러웠지만 후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욱 큰 화제를 모았고 덕분에 「주간한국」의 이름을 더욱 떨치게 했던 것이다. 요즘도 가끔 맥주회사 등에서 선전과 광고를 위해 술 마시기 대회를 하고 있는 듯 싶은데 지난 날의 남이섬에서 있었던 문인주당대회와 같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또 문단 명사들이 문인주당대회에 대거 참가하여 이름을 떨친 것은 아마 이 주당대회를 빼놓고는 없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문인과 술 - 하면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것이 사실인데 그 술이 주인공이 된 행사에서 문인들이 이름을 떨치고 또 그것이 장안의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문단의 술역사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근래에는 이런 행사를 아무도 생각지 못하게 되고 말았으니 세상 살기도 그만큼 재미가 없어졌다고나 할 수 있을까?

문단의 술의 발전을 더듬으며 그래도 웃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의 한가지가 바로 남이섬의 문인주당대회였던 것 같다. 문인주당대회로 화제가 분분하던 시절도 이제는 많이 흘러 까마득한 옛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 문인과 술은 낭만의 꽃이 피는 매개물이 되어 주기도 하고 막혔던 예술적 영감을 떠올리게도 한다. 그

래서 술은 문인에게 소중한 기특한 구실을 해준다. 문인주당대회가 지난 날 많은 화제를 몰고 왔으며 그것이 문단사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쾌하면서도 뜻이 있는 일이다. 그냥 지나가는 웃음거리의 한토막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술꾼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을지 몰라도 술을 즐기는 문인들에게 문인주당대회는 하나의 술에 얽힌 이야기거리로 두고 두고 전해지고 웃음과 즐거움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삶의 삭막함을 달래주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술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는 술이 좋은 글을 쓰는 매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힘이 되어준다. 술을 제대로 알면서 지혜롭게 마시는 가운데서 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지내야겠다.

신동한(申東漢)

조선일보·한국일보 기자, 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회장 역임 / 화관문화훈장 수훈, 월탄 문학상·이주홍문학연구상 등 수상 / 저서 「비평문학산책」 「문단주유기」 「문단천일야화」 등

